

“美的 이란 전쟁 장기화, 中 희토류 통제 여부에 달려”

SCMP “중국 수출통제 강화하면 미국 심각한 부족 직면” “美 희토류 재고 2개월치...미중정상회담서 중요 의제될듯”

미국의 이란전 장기화 여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달려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익명의 소식통과 전문가들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SCMP는 “미국은 현재 희토류 재고가 2개월 치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시드니공대 호주·중국관계연구소의 마리나 장 부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 미국으로선 핵심 무기 부품의 심각한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국은 첨단 무기 생산을 줄이거나 희토류 전략 비축량을 써야만 할 것”이라고 짚었다.

산업 싱크탱크 크리티컬 미네랄 허브의 설립자인 아만다 반 다이키는 “미국이 현재 미사일 비축량에 대해 이란과의 전쟁을 최소 3~6개월 지속할 만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면 (희토류 부족으로) 재보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산 광물 없이 미사일 생산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CMP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애초 이란과의 전쟁이 4~5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가 지난 9일에는 전쟁 조기 종결 가능성을 시사한 배경에 희토류 공급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봤다. 중국은 작년 4월 4일 희토류 17종 가운데

테르븀과 디스프로슘을 포함한 중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 통제를 시행하면서 해당 7종의 수출입에 특별 허가를 의무화했고, 같은 해 10월 수출통제 대상에 5종의 희토류를 추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1년 무역 및 관세 휴전’을 연장했으나 희토류 수출과 관련해서는 특별 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테르븀과 디스프로슘은 내열성과 고성능 자석 제조용 중희토류다. 전기자동차와 풍력 발전기 이외에 미사일 유도장치·전투기 엔진·고성능 드론 제조에 필수적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4년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의 71%가 중국산이며 이 기간에 미국이 수입한 테르븀 등 중희토류는 모두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수출입은행과 민간 자본을 활용해 120억 달러 규모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비축을 위한 ‘프로젝트 볼트’를 가동했는가 하면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광산을 재가동하고 호주·태국 등과 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희토류 생산과 공급망을 장악한 상황에서 미국이 단기간에 중

국의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예상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 기간 미중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문제가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SCMP는 전망했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학 센터의 자오밍하오 교수는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한 더 많은 확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은 희토류를 지렛대로 미국에 관세 및 수출 통제에 대한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리나 장 부교수는 “중국은 희토류 통제로 미국과의 협상은 물론 광범위한 지정학적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며 “희토류가 미중 전략적 균형을 재편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중국 희토류 광산 모습.

엔비

G7 정상들, 중동전쟁 경제대책 논의 화상회의

호르무즈해협 통행 안전 확보·전략비축유 공동방출 등

주요 7개국(G7) 지도자들이 11일(현지시간) 화상회의로 현재 중동에서 진행 중인 전쟁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다고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가 밝혔다. AFP에 따르면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실)은 “이번은 G7 회원국 사이에서 이 문제들을 처음 논의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조율이 상황에 대한 효과적이고 유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이슈”라며 회의 계획을 공개했다.

회의는 협정세계시(UTC) 기준으로 이날 오후 2시(한국 시간 오후 11시)에 열리며, 의장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맡는다.

G7 정상들은 이란의 기뢰 설치 시도 등으로 더욱 불안해진 호르무즈해협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과 유가 안정을 위한 전략비축유(SPR) 공동 방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9일에는 G7 재무장관들이 정상회의를 열어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일단 지켜보되 필요할 경우 SPR 방출 등 조치를 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